약 생각나면 "내일로 미루자" 다짐

글 최규열

마약류 중독자 체험수기집
후회와 눈물 그래도 희망이Ⅱ – 中

약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각이 나면 "내일 하자" 내일이 오면 또 "내일하자" 계속 미루게 되면 다짐이 되고 점점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부닥치면 어려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 닥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따 당하다 … 본드 시작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년 정도 뒤에 아버지도 사망하시면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3형제 중 막내인 저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있어, 큰 형은 입대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고 또래들이 많이 놀렸고 왕따를 당하면서 성격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 점점 더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대인기피증과 공포증도 생겼고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몇몇 친구들과는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들 중 본드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담배를 피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드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호기심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이 납작해져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독의 길로 다시 빠지다

그러다가 19세부터 한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생활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시간이 가지 않았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다시 본드에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발각됐지만 부모도 없고,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동장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선처해 주셨습니다. 그때 반성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몸에 인이 박혀서 그런지 더 몰래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외출증을 끊어서 했습니다.

방위 소집이 해제된 다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녁 늦게까지 계속 본드를 했습니다. 출근도 잘 못하게 되자 공업사에서도 성실하지 않다고 보고 저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나와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서 이 시기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회사

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일했지만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보수도 좋았습니다. 사장도 저를 잘 보아주어 신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보다 본드가 더 좋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 다니다가 퇴사했고 빈둥빈둥 놀면서 본드를 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다

아파트 뒤, 한 야산에서 하다가 누군가 저를 신고했지만 초범이기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살던 작은형 집에서 나와 큰형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다시 본드를 하다가 잡혀서 1년 8월의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는 본드 생각만 났습니다. 특히 나갈 쯤 되면 유혹이 강하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은밀하게 할까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서 보름만에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 본드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 징역을 살면서 20대와 30대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 작은형과는 의절하게 됐습니다. 잡히면 큰 형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큰형 집으로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큰형과도 말다툼을 했습니다. 큰형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헤어진 후 큰형과도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일용직을 해서 돈이 좀 생기면 그 돈이 떨어질 때 까지 본드를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2통 정도 했습니다. 한통을 하면 환각증상이 3~4시간 정도 갔습니다. 식사도 못 하고 몸에 축 쳐질 때까지 했습니다. 늘 눈의 동공이 풀린 상태로 지냈습니다. 몸무게도 10kg정도 빠졌습니다. 일보다는 어떻게 본드를 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교도소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단약을 결심하다

저는 또 다시 구속 돼 처음으로 치료감호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치료감호소에서 4개월 있으면서 중독재활센터의 홍보물을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감호소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데 나의 죄명이 유해화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외면하곤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많은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도 유해화학을 달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끊어야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출소한 다음, 큰형을 찾아가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갱생보호소와 중독재활센터를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독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서 회복하다

중독재활센터의 생활이 1주일 정도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생활도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안정되면서 과거를 매우 후회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잠에서 깨고 놀라고 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본드를 해서 그런지 교도소에서도 중독재활센터 초기단계에도 앞이 안보이고 쓰러질 정도로 심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치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식사도 잘하게 되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현기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이 떨어진 기억력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교육과 모임에서 계속 말하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목표와 기쁨 … 인생의 출발점

현실에 충실히 하고 직업재활교육을 열심히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더 열심히 달려 갈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직업재활훈련과정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약물로 인해 기억력 감퇴가 오고 훈련을 잘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럽기도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계속 노력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직업재활교육을 받으면서 힘든 것은 일보다는 단체 생활이다 보니 끝나면 회식이 있어 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다시 약물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 삼가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교육장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저를 '술을 못 먹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생활하다 보니 교육과 모임에서 계속 말하며 발표를 하게 됐고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